



소아기 호증(小兒嗜好症)

鄭 東 哲

성도착증엔 지난해에 밝혔던 동성애와 같이 대상을 올바르게 선택하지 못하는 또 다른 경우가 있다. 심지어 시간(屍姦)이라 하여 시체의 교섭을 병적으로 행하는 경우

가 있는가 하면, 근래 우리의 뉴스원이 되곤 하는 소녀유괴와 난행이란 또다른 도착증도 있는 것이다.

성인 이성을 성적 대상으로 택하지 않고 철모르는 어린아이를 대상

으로 성적만족을 피하는 말그대로의 파렴치범인데 소아기호증(小兒嗜好症)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옛조상들은 실로 묘한 생각을 지녀왔었다. 달의 정기(精氣)를 먹는 습속은 물론 사람의 정기도 먹을 줄 알았다는 것이다.

젊어지고 싶고 아울러 장수하는 비결로 소녀동침(少女同寢)이 으뜸이라 하여 동녀(童女)의 배꼽 주위에 서려있다고 믿었던 정기를 먹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 묘약의 효험을 위해서 섹스가 있어서는 안되는 절측이 있었으며 자칫 성적 교섭을 갖으면 오히려 몇 곱의 정기를 상실 뿐이라고 했다. 따라서 대단한 시련과 인내로 다만 성감대의 마찰로서 끝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하여간 「종말년 옷방에 드리듯」 소음동침(少陰同寢)은 젊어지고 묘약으로 쓴것이 당연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시체말로 병적 소아기호증이냐고 하는데는 물의가 있을 것이다.

물론 현상자체만으로 따져보면 확연히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없는 것도 아니다. 목적이야 어떤 것이던 그것도 성적행동의 변칙적인 것임엔 틀림없기 때문이다. 비록 성행위는 피한다 하지만 소녀로 하여금 갖는 변태적 요구를 안하리라는 확실한 근거는 없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때는 그것을 용인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당연지사로 여긴지라 그것이 병적으로 생각됐을 이치가 없다.

문제는 근래의 일이다. 더구나 옛 어른들의 동기와는 달리 억제할 수 없는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차마 동년배의 이성에게는 자신이 없는데다 불안하기마져 하여 병적으로 무저항의 어린아이를 택하려는 근본적 차이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소아기호증의 변태성욕자는 발기부전(일포텐스)의 성적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런경우 반드시 성교를 갖지않고 애무로 끝이는 수도 있게 된다.

통계적으로 모든 성범죄의 30%가 바로 이런 병질자라고 하며 대



부분이 남자들로서 다행히 강간을 일삼는 사람에 비하면 공격성이나 잔혹, 잔인성이 한결덜한것이 정설로되어있다. 또한 이들은 전연 모르는 아이를 택하기 보다 일가친척, 친지, 이웃간에 평소 안면이 있었던 아이를 선택함이 밝혀졌다(50~80%) 한편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보면 머리가 평균보다 떨어져 우둔한 경우가 적지않으며 습관적 음주력을 갖고 있거나 또는 할일없이 건들거리며 일만 저질르기 일수인 반사회적 성격자, 아니면 정신적 이상을 앓고 있는 30~40세 사이의 남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행동과는 달리 성에 대한 순결관은 의외로 완

고하고 보수적인데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런 태도로 인해서 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겸손한 사람으로 은폐되어 있기가 실상이다 흔히 알고보니 전연 뜻밖의 사람이었다고 생각될 때가 있곤 하는 이치이다.

원인이 검토되지 않으면 안되리라 생각된다. 이미 암시했듯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있다. 본시 성이란 것은 쾌락의 도구이자 출산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대인관계의 큰 몫을 이루는 도구로 모여 지는데 자기의 성격(남성적 또는 여성적)역할을 충분히 익히고 자신을 갖었다면 이런 비상수단은 아마 쓰지 않고도 되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엔 지나치게 병적 자기사랑(나르시슴)에 빠진 남여지 어린애로 머물러있고 싶은 미숙한 의도가 숨겨져 있기도 한다.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성장과정도 문제가 되는데 한마디로 올바른 성교육은 물론 인간교육이 되어있지 못한 증거이다. 그것은 부모의 책임이며 나아가 사회의 무질서한 가치관과도 무관한것이 아니다. 어찌 흥미의 애깃거리로 흘려보내야 할 것인가

<필자=경희의대 외래교수
정신과 전문의·의박>